2018년 9월 부모교육자료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의 잘못은 너무나 잘 보입니다. 너무 잘 보여 그대로 두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인 우리 역시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많습니까? 실수하고 마음먹은 것도 못 지키고, 안 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지난 한 달, 아니 지난 한 주만 찬찬히 돌아봐도 부끄러운 일 몇 가지가 금방 떠오릅니다.

하지만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못난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더 잘해보려는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심지어는 잘해보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지금은 버겁다면 조금 뒤로 미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우선은 나를 지켜가야 더 오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결국 더 깊이 변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내가 못마땅하더라도 부족한 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족한 아이가 못마땅하더라도 부족한 그 모습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부족한 모습에 가슴이 답답해오면 아이가 갖고 있는 사랑스러움에 애써 눈을 맞추세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사랑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말로 포장된 내 욕심일 뿐입니다. 욕심도 때로는 발전을 위한 힘이 되지만 욕심껏 안 될 때 금방 무너집니다.

※ 출처: 서천석(2017). 우리 아이 괜찮아요. 예담